

무안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시확진...전남서 12번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30일간 이동 제한·일제 검사 시행 영암서 확진 6일만에...70개 농가 닭·오리 231만마리 살처분

14일 무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58번째, 전남에서는 12번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8일 방역기관의 도축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해당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오리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출하 30일 전, 20일 전, 출하 직전 등 3차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무안의 경우 출하 직전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확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8일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지 6일만에며, 12번째다. 이로써 전남도내에서는 지난날 4일 이후 오리농장 11곳과 닭 농장 1곳 등 농장 1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했다. 지금까지 70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231만 6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무안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닭과 오리의 수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급속히 확산될 것을 우려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9일 해체되는 쌍촌동 군사시설보호지역 국방부는 오는 19일부터 여의도의 34.7배에 달하는 전국 1억67만4천284㎡ 규모의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서구 쌍촌동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군사터(빨간 점선 내) 모습. 사진 오른쪽으로 505 보안부대가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개발한다

시, 참여기관과 개발 업무협약 지역기업 연계 기술교류 지원

광주시가 주도하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광주 주도로 기획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사업수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4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LIG넥스원(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하이즈항공(주)(제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전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구조·성능해석), 태경전자(주)(임무장비), 한국항공기술KAT(성능평가),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1보병사단(실증지원, 수요처)과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 LIG넥스원㈜김지찬 대표이사, 하이즈항공㈜김광엽 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해창 소장,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이사, 한국항공기술KAT㈜ 정연석 대표이사, 김관필 제11공수특전여단장, 제31보병사단 최순진 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무인항공기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판단하고, 각 분야 최고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를 비롯한 참여 기업들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인증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제도·기반시설 구축, 공동 연구과

제 발굴 및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 드론의 운용시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린뉴딜의 핵심인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은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전문 생산기업 참여가 예정돼 있어 컨소시엄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이 앞으로 드론택시, 플라잉카 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대로 전환되는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다"면서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체인 드론과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업·청년 모집

16개 사업에 420여 명 채용

광주시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중 하나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가 지원되며, 지자체 주도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한다.

코로나19에 따라 지역 청년의 비대면·디지털 분야가 확대됐다. 모집 대상은 비대면 전략산업 청년 채용 지원, 언택트 산업 기술인력 지원, 디지털·뉴딜 청년 인턴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광주시 7개 사업 277명과 자치구 9개 사업 14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 90%와 직무교육비 등이 추가 지원된다.

모집공고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돼 있

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8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접수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청년 14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는 5개 기관에서 모집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만족도 높아

이용객 혼잡·위험도 낮춰 코로나 예방 재방문 의사 유도 긍정적 이미지 기여

지난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안심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해수욕장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완화해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전남도는 도내 9개 시·군 13개 해수욕장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예약과 현장 점수를 병행했으며, 발열 체크한 후 이상 없는 사람만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총 11억9600만원이 투입됐다. 성과평가는 사전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에 착수,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문헌 조사, 설

문지 등 자료체계산출 기법이 활용됐다. 이용객 인식 조사를 위해 방문객 1283명과 지역주민 278명, 종사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신뢰도를 높였으며,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통한 사회적 적정거리 유지 및 인구 밀집 분산 유도 효과를 중점 검증했다.

특히 해수욕장 사전예약제가 백사장 내 이용객이 느끼는 혼잡도와 위험도를 낮춰 코로나19 방역 효과뿐 아니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의사를 유도해 해수욕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남도는 사전예약제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국비 확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해양수산부와 다른 사·도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전예약제' 운영기간 중 16만7000명이 도내 안심해수욕장을 이용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만6000원으로 약 160여원을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난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2만3889ha '역대 최대'

전남도가 민선 7기 들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유기농산물 인증 역대 최대 면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집계 결과 전남지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1만 5722ha보다 8167ha 증가한 2만3889ha로 역대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3만8697ha의 62%에 해당된다.

특히 도내 전체 인증면적 4만6041ha 중 유기농이 51.8%인 2만3889ha로 무농약 인증면적 2만

2152ha를 앞질렀다. 소득작목인 과수·채소 인증면적도 크게 늘었다. 과수의 경우 2019년보다 93ha가 증가한 1033ha, 채소는 무려 508ha가 증가한 1292ha로 조사돼 품목다양화의 양상을 보였다.

유기농 중심의 품질고급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농업과에서 식량원예과를 분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 ▲전국 최초 유기농 명인 지정 ▲유기농 지속작물 및 종합보험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분석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4500억원 용자

전남도는 14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올해 총 자금규모는 4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임차료와 인건비,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3800억원,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 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쓰일 시설자금은 700억원이다.

지원을 희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의 경우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시까지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2년거치 일시상환 2.0~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1~1.4%, 소상공인은 2년거치 일시상환 2.0%,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1%로 지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조선업종, 스마트공장 등에 대해선 자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올해 1분기 기준 연 2.0~2.25%까지 저리 지원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성가득 마음을 담은 설맞이 선물기획전

근하신년 설맞이 기획전

1.8 ~ 2.5

설날 이벤트

- 명절상품권 운영기간중 5만원이상 구매 고객 15명 추천
- 명절상품권 운영기간중 10만원이상 구매 고객 10명 추천
- 명절상품권 운영기간중 20만원이상 구매 고객 5명 추천
- 5만원이상 구매고객 100명 추천 소정의 기념품 증정

1만원 단품미인물 포인트 지급

2만원 단품미인물 포인트 지급

3만원 단품미인물 포인트 지급

*본 이벤트는 단품미인물쇼핑을 회원가입하신 분들에게 한합니다.

단품미인물쇼핑 063-532-4345 / 063-535-4345

택배 마감 안내
기간: 1월 8일 ~ 2월 5일 오전 11시30분까지 주문 완료
명절 택배물량 증가로 인하여 택배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소 특가세일

세일 30%이상

기간 1/19(화) 오전 9시 ~ 1/20(수) 오전 11시 30분까지